

1989년의 世界經濟 展望

—日本 上智大, 内野達郎 教授—

1. 概觀

새해의 世界經濟에 어떠한 展望을 내릴 수 있을
가 이에는 먼저 최근 1年間に 싹튼 世界經濟의 큰
潮流變化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가 중요하다 하
겠다. 아마 1988年은 역사의 큰 움직임 속에서 상
당히 중요한 변화를 형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世界의 6大 潮流 變化

(1) 데탕트Ⅱ의 進展

여기서 世界 政治經濟의 6大 潮流 變化의 첫째는
작년 '88년 5~6월의 美蘇頂上會談을 계기로 급속
히 진행되고 있는 데탕트Ⅱ이다 (이에 대한 데탕트
Ⅰ이란 1960년대말에서 '79년에 걸친 브레지네프=
닉슨~카터정권시대의 軍縮交渉이었으나 불행하게
도 蘇聯의 아프간 침공으로 東西軍擴張緊張時代로
움아갔다). 현재의 데탕트Ⅱ는 東西를 리드해온 超
強大國 美·蘇의 財政窮乏 사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적어도 今世紀中까지 계속될 조짐이
짙다.

이 데탕트Ⅱ에 자극을 받아 지금까지의 重大世界
의 局地戰爭이 잇달아 수습되어 平和機運이 확대되
고 있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6월에는 소련군
이 아프간으로부터 철수하기 시작했고 베트남군이
캄푸치아로부터 撤軍을 시작하고 中美의 니카라과
停戰이 성립하고, 또한 8월에는 이란·이라크戰爭
이 8년만에 停戰했다. 이와 같은 平和潮流는 2次
大戰後 世界에서는 전혀 새로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 東西交流擴大와 페레스트로이카, 그리고 民主
化

둘째는 東西交流擴大에 대한 새로운 胎動이다. 서
울올림픽이 성공리에 끝났을 뿐만 아니라 한국은
북한과 한국동맹 반발이래 38년만에 경제교류를 指
向하고 나아가서 소련·東歐圈 및 中國 등 社會主義
國家와의 經濟關係의 友好化에 힘쓰고 있다. 또 東
歐圈 國家는 擴大 EC의 움직임을 뜨거운 눈으로
보고 있고 소련도 시베리아·동아시아 문제를 적극
적으로 어필하는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세째는 동쪽에서는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
카, 서쪽에서는 레이건이나 대처의 De regulation
정책에 상징될 수 있듯이 「市場原理」를 살려 이로
서 經濟活性化를 꾀하려는 의욕과 政策発想이 東西
체제의 울타리를 넘어서 Borderless (무국경)적인
추세로 자극되고 있는 것이다.

네째는 많은 開途國이나 東歐圈 國家에서 民主化
運動이 높아져 專制的인 언산레짐을 배제하려는 潮
流가 차츰 힘찬 에너지를 형성하기에 이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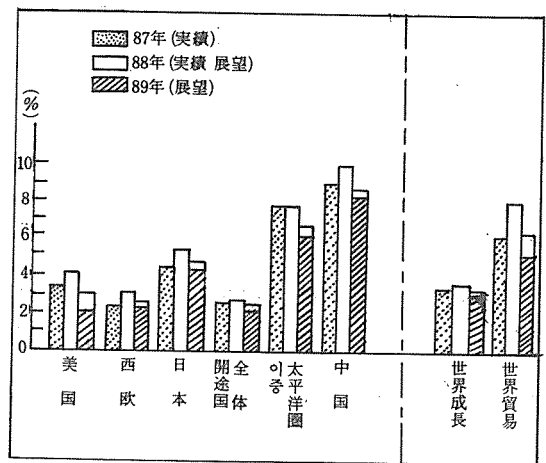


圖 1 '89년의 經濟成長率展望

(3) 아시아 太平洋時代와 擴大 EC

그리고 다섯번째는 아시아·太平洋時代가 역사상 처음으로 잠재력을 가지고 전개하기 시작한 것이며 그것은 결코 一過性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日本과 東아시아를 중요한 축으로 하는 새로운 國家分業關係와 貿易·資金·사람의 交流增加가 거기에 있으며 앞으로 미국도 이 重要性을 輕視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여섯번째는 擴大 EC 내지 EC 統合化에 대한 힘찬 潮流이다. 유럽비관주의라 불리워지기 쉬웠던 서유럽이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도 이 潮流는 크게 주목된다.

나. 美國經濟의 壓力阻止를

데탕트라든지 戰爭 수습이 global 世界의 資源配分の 구조를 平和需要重點으로 轉換시켜 日本 및 東아시아 地域의 충실한 成長과 擴大 EC 地域의 발전이 美國經濟의 壓力을 저지함으로써 世界 全體의 經濟成長을 촉진해 나갈 수 있다면 앞으로 21世紀初에 걸친 世界展望은 상당히 밝아질 것이 틀림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88년의 世界經濟는 事後的으로는 그런대로 순조로왔다. 事前的으로는 — 世界的 대공황이 다시 온다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87년에 있는 암흑의 월요일 後遺症이 世界經濟 전체에 적지않게 정체되지 않을까 우려되었으나 그러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세가지의 포인트가 있다.

첫째는 미국·일본·서유럽의 주요지역을 비롯하여 累積債務國을 제외한 世界의 많은 국가에서 예상을 초월한 높은 實質經濟成長이 실현된 것이다. 이에 따라 世界貿易도 예상 외로 伸張하여 各國의 成長促進에 플러스의 영향을 갖고 왔다. 특히 東아시아와 아세안 제국은 크게 성장했다.

둘째로 이같은 가운데서도 世界의 貿易不均衡문제 가 일찍부터 주목되었던 美國을 중심으로 개선하는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美國의 輸入伸張은 여전히 높았으나 그때까지의 달러 하락의 효과로 경쟁력이 강화됨으로써 輸出이 대폭 增加하여 貿易赤字가 축소방향으로 나아가 '88년 중반경에는 일시적이거나 달러高 現象이 나타났다. 또 日本의 貿易赤字도 內需擴大와 製品輸入 증대에 따라 개선방향을 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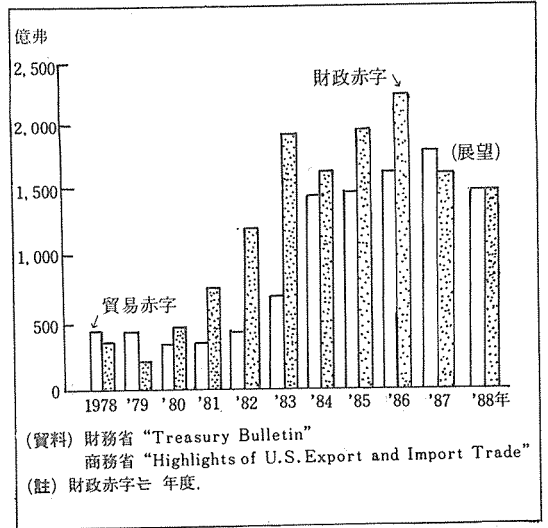


圖 2 美國의 쌍둥이 赤字의 推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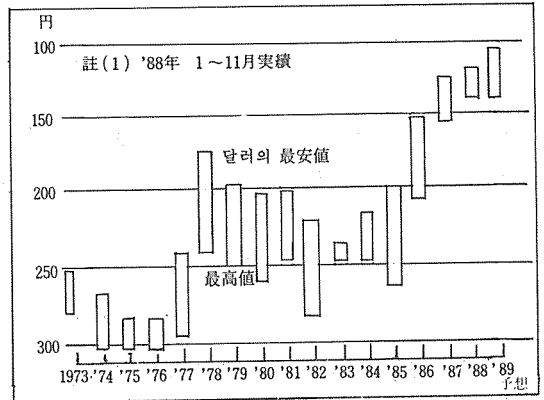


圖 3 달러 하락·円高는 進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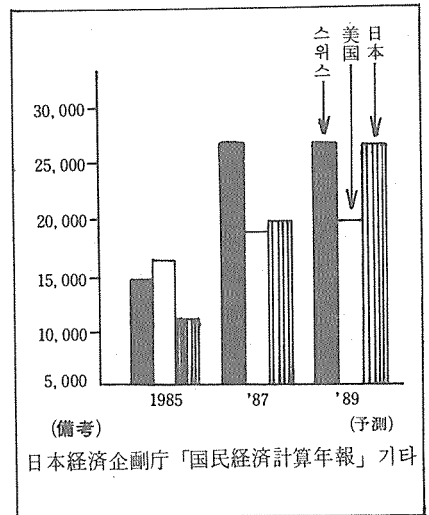


圖 4 1人당 GNP 水準의 比較

그리고 세계는 世界の 原油價格이 떨어져서 西歐와 美國의 고수준의 성장 속에서 싹튼 인플레이 우려와 앞으로 金利가 높아질 것이라는 느낌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한 것이다. 그러나 原油價格이 지나치게 낮은 것은 한편으로는 累積債務國의 부담을 무겁게 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88년의 世界經濟를 特徵지은 세계의 포인트는 新年의 世界經濟를 展望하는데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먼저 原油價格에 대해서는 OPEC 増産에 의한 供給過剩 때문에 前年보다 약세의 낮은 수준으로 추이하여 큰 파란은 없을 것 같다. 다만 中東情勢에 관하여 파레스타인·이스라엘 문제로부터 눈을 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Lucky였던 '88년에 비하면 '89年 世界經濟의 成長率도 世界貿易의 擴大 tempo도 아마 둔화할 것이 확실하다. '89년의 주요국 내지 주요지역의 경제성장 전망은 筆者의 판단을 포함하여 圖 1에 일괄적으로 揭記했으나 불투명한 面이 적지 않기 때문에 예측 그래프에는 약간의 폭을 갖도록 한 것이다.

전망이 제일 불확실한 것은 1월 20일에 레이건으로부터 부시로 정권이 바뀐 美國이다. 현재 부시 대통령이 표명한 방안을 아몽든 실질 3% 정도의 經濟成長을 유지하여 稅의 自然增收에 기대하면서 점진적인 프로세스로 1995年 會計年度에 財政의 균형형을 꾀한다는 줄거리로 되어 있다. 그것은 선거전 중에 増稅를 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것이라든지 財政赤字의 유연한 凍結(프렉시블 프리즈)과 같은 캐치프레이즈에는 합치하더라도 이에만 계속 고집하고 있었다가는 현실적으로 달러와 NY 株價의 再暴落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 결국은 所得増稅가 아니더라도 휘발유 稅·酒稅 기타의 間接稅 増稅와 현재 가장 어려운 歲出抑制의 세트로 財政赤字의 압축에 힘쓰게 될 것인지. 그것은 過大消費型 美國의 經濟體質을 개선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며 美國의 實質經濟成長率은 '88년의 약 4%에서 2~3%로 저하시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美國經濟가 그 같은 道程이 불가피하다면 레이건 政權의 후기에 있어서 過度할 정도로 美國에 의존해온 世界經濟의 成長率도 거의 전반적인 鈍化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西유럽의 成長 둔화에는 노동력을 비롯한 供給力 부족이라든지 景氣過熱과 같은 별도의 요인도 가세된다. 또 역사적으로 왕성한 성장시대에 있는 太平洋圈 NICS의 成長率은 상대적으로 世界の 평균보다 높을 것으로 展望되고 있으나 '88년의 約 8%에서 '89년에는 6~7%로 둔화할 것이다. 그 이유는 주요한 輸出相對國인 美國에 對한 외환시세的高水準과 美國의 GSP 정지, 각국의 人的 供給能力의 當면한 한계 등으로 되어 있다.

일본은 內需大型의 지속적인 성장과 민간의 하이테크(고도첨단산업) 부문을 중심으로한 왕성한 활력, 國際競爭力의 강점을 유지하면서 新年度에도 5% 台는 어렵다 하더라도 4% 台나 5% 台에 가까운 성장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일본이 두어진 위치로 봐서 美國經濟의 미묘한 움직임과 東아시아 諸國의 추격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 世界經濟 全体로서의 實質成長率도 世界貿易의 확대 tempo도 '88년보다 완만해질 것이다. 그러나 東西接近의 새로운 움직임 속에서 東西貿易은 신장, 동쪽 상호간의 무역도 그런대로 신장하면서 세계무역을 뒷받침하는 움직임이 기대된다.

다. 가장 심각한 것이 美國의 不均衡 擴大

世界 全体로서 바라본 成長과 貿易의 鈍化는 어떤 의미에서 前年이 지나치게 Lucky 였던데 대한 조정을 뜻하여 世界經濟가 대불황으로 빠지는 사태와는 별개문제이다. 主要國이 협조하여 나쁜 사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政策을 事前에 취하면 그것은 회피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파스·콘솔티스(주요국간의 協調精神 高揚과 이를 실현하는 정책)는 특히 新年에는 중요할 것이다.

成長鈍化에 대한 대응 이상으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世界經濟를 어렵게 할 不均衡 擴大 問題이다. 實在하는 世界の 不均衡 저변에 累積債務國과 飢餓的인 開途國의 문제가 존재하고 또 바로 옆에 基軸通貨國으로서 2次大戰後 계속 군림해온 美國의 대단히 해결하기 어려운 「쌍둥이 赤字」 문제가 있다.

圖2에서 보듯이 미국의 「쌍둥이赤字」는 '86년 경을 고비로 縮小傾向을 나타냈긴 하나 新年에 더욱 진전될 것인지의 여부는 모른다. 超党派인 國家經濟委員會는 財政赤字 삭감을 세출 삭감과 增稅의 양면에 걸쳐 초봄에 제안할 예정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의 成案은 가을경까지 미루어질것 같다. '89년도의 財政은 그림 레드맨법에 의한 赤字目標額의 1,360억달러를 200억달러 남짓 웃돌 것이라고 傳해지고 있다. 貿易收支赤字도 1,300억달러에 그치면 좋은 편이라고 보여진다 ('88년의 実績展望은 1,350억달러 정도). 対日赤字도 그다지 개선되지 않을 지도 모른다. 금년의 미국의 쌍둥이赤字 개선이 원활하지 못하면 현실로는 세 가지의 코스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첫째 코스는 가일층의 달러 하락의 진행으로 달러의 最低價와 最高價의 폭은 작년 이상으로 擴大하여 심한 기복을 보일 것이다(圖3). 달러 하락이 더 이상 진행되면 美國經濟가 인플레이 우려의 한계에 달해 金利上昇을 매개로 株價와 달러의 충돌이 재현될 위험성을 띠고 있다. '87년 10월의 충돌이 잘 수습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잘 수습될 것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

그리고 둘째 케이스는 美國에 景氣後退가 오지 않더라도 成長率이 2% 정도까지 떨어져서 충돌을 막는 일이다.

세째 코스는 이 이상의 달러 하락을 허용하는 것, 따라서 인플레이 기대를 증진시키지 않는 대신의 조치로서 新通商法의 수퍼 301條를 사용하여 강경파적인 保護主義 강화를 허용하여 일본이나 아시아 諸國으로부터의 輸入을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수단을 취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世界市場의 질서는 대혼란에 빠져 아시아 NICS로부터 일본으로의 대량의 제품수출 러시가 이루어져 일본경제를 현재의 호황에서 不況的 國면으로 전환시킬 가능성이 없지도 않다.

日本으로서는 첫째 코스도, 세째 코스도 모두 피해를 끼친다. 둘째 코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의 각오가 필요하며 世界貿易의 安定化와 世界的 불황 회피를 위해서는 日本이 가장 內需擴大 지속에 따른 需要의 흡수에 힘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 日本을 빼고는 世界經濟를 말할 수 없다. 日本經濟는 國內의 이른바 有史 이래의 好景氣 再來 무드에 들떠 있는데 더 先見的으로 序頭에 기술한 世界의 大潮流 變化로 長期的인 적응력을 연마하는 동시에 新年에 들어 미국의 불균형이 재확대된다는 인식을 갖지 않으면 現在의 好況도 砂上樓閣으로 끝날 우려가 있다.

엔고, 달러 하락을 헤쳐나간 日本經濟의 世界 속의 약진상은 대단히 두드러졌다. 이제 日本經濟를 빼고서는 世界經濟를 論할 수도, 世界經濟를 배려하지 않고 日本經濟를 말할 수도 모두 불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다. 圖4에서 엿볼 수 있듯이 엔高急進을 헤쳐나와 이제 日本의 1人당 GNP 수준은 世界中에서 월등한 높이에 올랐다. 그것은 이미 '87년에 美國을 제쳤고 현재는 스위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여 世界제일의 수준에 도달했다.

그러나 국민에게 豐滿의 실감이 없는 것도 거짓 없는 현실이다. 이는 國民生活의 풍만함을 추구해 나가기 위한 政策課題와 가까운 미래를 훑어본 內需擴大를 위한 개혁자 정신이 아직도 많이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日本經濟는 당면의 好況에만 심취하지 말고 이 好況을 진실되게 내용있는 것으로 하고 內需大型의 지속적인 成長을 적극적으로 견지해 나가는 자세로 新年에 대처해야한다. 그리하여 그것이 日本經濟의 世界經濟에 처한 에프소프션 効果를 통하여 불균형을 시정하고 美國 經濟力의 한계를 보완하여 國際的 공헌을 하는 길이라는 것에 더 자신을 가져야 한다.

日本은 조금이라도 으시맨다든지 霸權國家를 지향할 필요는 없으나 21世紀에 걸친 世界의 큰 潮流, 메가트렌드를 정확하게 성찰하여 日本經濟가 오랜 繁榮의 과실을 世界 전체의 평화적 發展을 위해서 써 나간다는 포부를 다시금 간직하고 나아가야할 것이다. 새로운 해는 이를 위한 중요한 역사의 획을 긋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美·日의 經濟

—日經新聞 Macro 經濟 Data bank—

가. 美國

달러 하락 効果의 일단락으로 美國의 輸出은 減

速, 設備投資에도 둔화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實質成長率は 2%대 중간의 완만한 것으로 그친다고 先進 7개국 단기 모델에 의한 NEEDS-WORLD 분석은 1989년 美國의 經濟行方を 이렇게 예측하고 있다.

美國景氣는 '82년 11월을 바닥으로 이미 73개월의 擴大期間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88년은 '85년 9월의 프라자 合意이래의 달러 하락 효과가 침투하여 輸出이 급속도로 회복, 이에 보조를 맞추어 設備投資가 왕성한 構造調整形의 성장을 하여 實質成長率は 3.9%의 높은 신장을 보일 전망이다. 한편에서 個人消費를 중심으로 內需는 여전히 왕성하여 인플레이 우려를 씻어버리지 못하는 것이 世界經濟 전체의 불안재료로 되어 있다.

'89년의 美國經濟는 지금까지 好景氣를 이끌어온 輸出과 設備投資의 伸張이 鈍化된다. 輸出은 실질로 年率20% 前後의 높은 伸張이 계속되고 있었으나 '88년 2/4분기, 3/4분기에는 GNP 베이스 前期比 年率 약 10%로 떨어지고 있다. '89년의 實質輸出은 '88년의 伸張率 18.1%에서 약 절반인 9.9%로 페이스 다운한다. 企業收益의 好調와 稼働率의 上昇에 힘입은 設備投資도 伸張率이 떨어진다. '89년에 걸쳐 企業收益은 賃金과 物價의 상승으로 둔화되어 稼働率도 지금까지의 投資가 生産能力의 增加에 이어진다. 投資의 前年比 伸張率은 實質 GNP 베이스로 '88년의 6.4%에서 3.3%로 떨어진다.

(1) 個人消費도 0.5% 다운

輸出과 設備投資의 양쪽 날개의 피치가 둔화되면 든든했던 個人消費에도 영향이 나온다. 個人消費는 內需의 最大 需要項目이지만 '89년은 '88년보다 0.5% 낮은 2.2%가 된다.

이 때문에 '89년의 實質成長率は '88년의 3.9%에서 대폭 떨어져 2.4%에 그친다.

한편 인플레이 우려에는 끊임없는 경계가 필요하다. 우선 總需要와 供給能力이 접근한 상태가 계속되기 때문에 인플레이率は 上昇기미로 推移한다.

다만 原油價格의 하락이 코스트 引下 요인이 되어 需給의 逼迫이 당장 인플레이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 消費者物價 上昇率은 연율 5%를 크게 넘는 일은 없다.

美聯邦準備理事會(FRB)의 金融政策 運營은 景氣의 감속이 밝혀지기까지는 타이트한 金融調節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또 가일층의 再割引率 引上도 있을 수 있다. 예상을 웃도는 성장이 계속, 需給이 逼迫한 채 있으면 原油價格이 反騰, 달러 하락이 진전될 경우에 인플레이를 억제하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2) 決定打가 없는 財政赤字對策

쌍둥이赤字 중 經常收支의 赤字는 輸出에서 감속한다고는 하나 輸入보다 伸張하기 때문에 赤字縮小가 완만하게 진전한다.

前提가 되는 貿易收支의 赤字幅은 '88년의 1,310億달러에서 1,253億 달러로 縮小 國際金融, 資本市場의 혼란요인이 될 가능성은 적다.

그러나 또 하나의 財政赤字의 縮小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부시 대통령이 「增稅하지 않는다」고 선거공약을 했기때문에 당분간은 발본적인 對策이 강구되지 않은 채 나갈 가능성이 크다. 歲出增加를 物價上昇의 범위내에 억제하는 Flexible freeze (歲出의 탄력적인 동결)을 실행해도 收支均衡에는 접근하지 못한다. 財政赤字는 年 1,500億달러 정도의 수준이 계속된다.

그러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①揮發油稅의 增稅 ②그램 레드맨法(財政均衡法)에 따른 歲出削減의 두가지 케이스에 대해 모델 예측을 해본다. ①의 케이스는 1갤론(3.78ℓ)당 9.1센트의 揮發油稅가 2배나 된다는 전제이다. 揮發油稅收는 年 110億달러 이상 증가하여 財政赤字는 그 만큼 감소한다. 經常收支도 內需의 억제로 30億~40億달러 축소된다. 다만 消費者物價가 0.5% 上昇, 消費가 감퇴하기 때문에 經濟는 「低成長, 인플레이」의 방향으로 향한다.

(3) 不況을 招來하는 財政均衡法

그램 레드맨法이 기준이 되어 있는 會計年度(10월~9월)에서는 '88년도는 1,550億달러의 赤字이다.

목표로 되어있는 「93년 收支均衡」을 달성하기 위해 歲出削減만으로 '89년도 1,370億달러 '90년도 1,000億달러라는 中間目標을 달성하는 시나리오를 그리면 美國經濟는 어떻게 될까. 實質成長率は '89년에 1.6%로 '90년에는 마이너스 0.7%라

	1987年	1988年	1989年	1990年
實質成長率(%)	3.4	3.9	2.4	1.7
實質民間最終消費(伸張率, %)	2.7	2.7	2.2	1.9
實質固定資本形成(伸張率, %)	1.9	6.4	3.3	▲0.9
消費者物價上昇率(%)	3.7	4.1	4.7	4.5
失業率(%)	6.2	5.5	5.7	5.7
30年國債利子(%)	8.58	8.95	9.01	8.69
페더럴펀드레이트(%)	6.66	7.52	8.50	7.52
鉅工業生産指數(伸張率, %)	3.8	5.5	2.6	2.1
財政収支(億달러)(會計年度)	▲1,500	▲1,551	▲1,470	▲1,423
貿易収支(億달러)(會計年度)	▲1,703	▲1,310	▲1,253	▲1,156
經常収支(億달러)(會計年度)	▲1,540	▲1,333	▲1,237	▲1,195
환율(1980年=100)	107.98	102.23	101.97	102.93

註: 환율은 實効율

는 불황을 초래하게 된다.

영향은 日本, 歐洲의 경기에도 미쳐 '90년 日本의 成長率은 2.9%로, 유럽 4개국(서독,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도 1.9%로 떨어진다. 굳이 불황을 선택하는 그림 레드맨法的 실현은 대단히 곤란하다.

달러 하락이 美国經濟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예측을 해봤다. 비교는 ①은 標準케이스(1달러=120엔) ②는 ①에 비해 달러가 主要通貨에 대해 10%하락한 케이스(1달러=108) ③은 ②에 의한 인플레이를 방지하기 위해 再割引率을 표준 케이스보다 1% 인상한 케이스. ②의 케이스에서는 美国製品的의 價格競爭力이 향상, 輸出이 伸張하여 90년의 經常赤字는 1,100億달러에 까지 개선된다. 그러나 生産增加, 需要增加를 위해 稼動率이 上昇, 輸入物價의 上昇과 더불어 도매물가는 5%台的 上昇率이 된다. 輸出의 拡大는 成長率을 높여 '89년은 實質 3.1% 成長을 확보하지만 효과는 오래 계속되지 않고 '90년에는 鈍化한다. 오히려 인플레이의 악영향이 우려된다.

③의 달러 하락과 金融緊縮政策의 병용에서는 設備投資를 중심으로 하는 內需의 감퇴로 달러 하락의 플러스 효과가 상쇄되어 '90년의 成長率은 ①과 변함없이 없어진다. 인플레이는 ②의 케이스보다 약간 진전되지만 도매물가의 상승률은 연을 5%대가 계속된다. 經常赤字의 縮小面에서는 內需가 정체하기 때문에 '90년에 1,000億달러라는 급 피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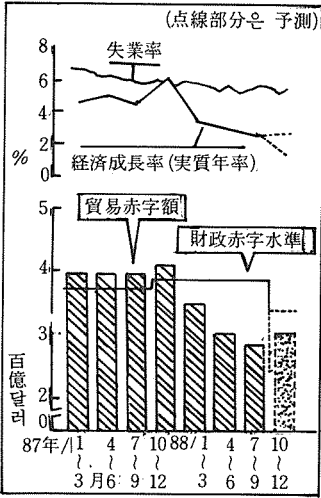
개선이 된다.

'89년 日本은 好循環으로 확대하는 大型景氣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美国의 經濟成長은 감속한다. 유럽景氣도 '88년의 實質 3% 이상의 成長에서 2%台的 成長으로 감속한다. 西獨은 財政再建을 위해 歲出抑制과 더불어 附加價值稅의 增稅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個人消費를 중심으로 內需가 둔화, 成長率은 저하한다. 英國은 內需가 好調이지만 生産能力 이상의 需要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貿易赤字와 인플레이 등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世界經濟를 전체적으로 보면 '89년의 成長은 '88년에 비해 緩慢해질 것이다.

1월 20일, 부시 새대통령이 취임하여 향후 4년 간에 걸치는 共和党的의 새로운 政權이 발족했다. 과거 8년, 같은 黨이 지지해온 레이저노믹스(레이건 대통령의 경제정책)는 好況의 한편에서 「쌍둥이赤字」를 낳아 美国經濟의 장래에 불안을 남겼다. 財政, 貿易兩面의 赤字體質에서 탈피할 수 있을까, 달러를 안정시켜서 산업경쟁력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 難題에 向하는 新政權의 첫해가 아닐 수 없다.

最優先目標을 「財政의 均衡」으로 한다는 것은 世論과도 일치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 자신이 閣僚人事에서 赤字對策을 最重要視하는 布陣을 했다. 次期大統領 經濟諮問委員會(CEA)委員長 보스킨 스탠포드대 학교수는 부시씨가 公約한 「歲出의 유연한 凍結」 전략의 이론적 支柱이다.

전략대로라면 實質年率 3%의 經濟成長을 계속



(美國의 주요 經濟指標의 推移)

하여 稅收의 자연증가를 기대하는 한편 金利上昇을 억제하여 國債利子支拂의 增加를 최소한으로 억제한다. 「強한 정치의지만 있으면 93년에 財政은 均衡한다」는 시나리오이다.

그런데 景氣전망의 명암이 교체하기 시작했다. '88년 3/4분기는 實質年率 2.5%로 그런대로 이지만 內需의 압력으로부터 인플레이 우려가 일어나고 있으며 美聯邦準備理事會(FRB)는 短期金利의 높은 유도 등 고삐를 당기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民間予測으로는 '89년 上半期 4.2%, 下半期 2.6%인 것을 비롯하여 1년간에 2.5%로 감소하여 내년중이나 내후년에는 경기후퇴가 불가피하다는 비판론까지 갖가지 예측이 나와 있다.

美國景氣는 '82년 12월 이후 70개월 이상이나 擴大를 계속해 왔으나 이제는 消費支出이나 設備投資는 끝나지 않겠느냐하는 견해도 나와 있다. '88년의 추정 3.8% 成長에서 어느 정도 후퇴하느냐에 따르지만 成長이 둔화하면 稅收도 비틀어진다.

「增收하지 않는다」는 것이 선거중에서 일관된 부시 대통령의 공약이다. 그러나 당선 직후에 외환시장에서 일거에 달러가 팔려 달러 하락에 박차가 가해졌다. 揮發油稅 引上案도 浮上하고 있으나 최종 협의는 이제부터이다. 볼커 前FRB議長 등은 增稅에 나서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新大統領의 결단이 주목된다.

또 支出凍結의 내용에 있어서도 共和黨의 行政府와 民主黨 傷位의 의회와는 예리하게 대립할 것 같

다. 특히 고르바초프, 소련 共產黨書記長의 軍縮攻勢와 얽혀 국방예산의 削減방향이 초점이 된다.

국방비 유지를 요구하는 共和黨 議員도 많고 社會保障費 削減에 저항하는 民主黨 側과의 줄다리기는 활발해질 것이다. 國防長官 人事는 최후까지 난항하여 이에 대한 조정의 어려움을 나타냈다.

1년전 까지만해도 개선이 어려웠던 貿易赤字는 '88년 3/4분기까지 3분기 연속으로 감소, 달러 하락에 의한 미국산업의 가격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자본수지를 포함한 經常收支의 赤字도 3/4분기는 2/4분기비 8.4% 감소했다. 다만 개선속도가 쇠퇴하기 시작했으며 낙관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다시 그늘지기 시작하면 尙日 摩擦의 再燃도 곧 있을 것 같다. 쌀 등 市場開放問題도 남아있는 만큼 例를 들면 包括通商法의 적극활용론이 전면에 나올 것 같다.

新政權의 거울인 女性閣僚 C 힐즈 USTR (美通商代表部)代表, 또는 텍사스 인맥의 한사람인 로버트·모스베처 商務長官 등 새얼굴들의 수완이 주목된다.

나. 日 本

(1) 實質 4.3% 成長 '89年度에도 順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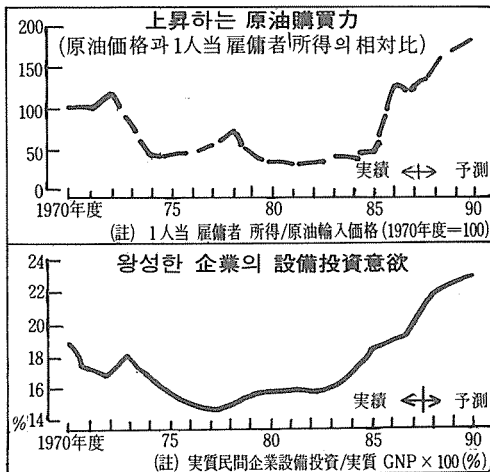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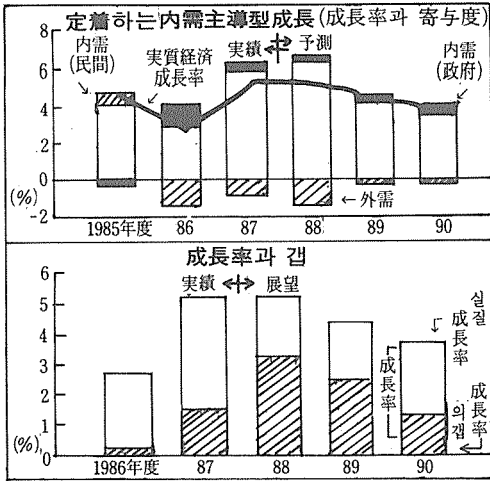
엔고가 계속되어 輸出增加에 따른 尙外摩擦의 制限 등 염려되는 재료는 있으나 景氣는 內需主導로 계속 확대된다.

1989년도 實質經濟成長率은 4.3%로 전년도 전망인 5.2%보다 약간 떨어지겠지만 安定된 成長을 계속한다는 것이 NEEDS-ECONOMY의 Macro model 예측에 의한 日本經濟의 모습이다.

1988년은 엔고, 原油하락, 低金利의 3底를 배경으로 企業收益이 擴大, 民間設備投資와 個人消費의 상승효과로 內需가 성장에 이바지했다. 금년은 內需의 成長이 약간 鈍化하겠지만 이같은 好循環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日本經濟를 둘러싼 환경에 대해서는 高度經濟成長의 最終段階에 해당하는 1972년과 흡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첫째는 저렴한 原油이다. 당시 제1차 石油波動前에 1Kℓ당 4,800엔, 그후 '81년에는 5만엔까지 올랐으나 작년에는 엔고와 달러 베이스의 가격하락



으로 1만 3,000엔까지 떨어졌다. 오히려 1인당 고용자 소득으로 購入할 수 있는 原油는 작년쪽이 '72년보다 많다.

또 財政再建을 추진한 결과 작년의 政府均衡은 2,300億엔의 黒字로 바뀌어, '72년의 1조 7,000億엔 赤字보다 개선되었다. 經常収支의 対名目國民總生産(GNP)比率도 15년전과 같은 2%대로 떨어지고 있다.

'73년에는 原油價格의 폭등으로 일거에 經濟는 혼란에 빠졌다. 그러나 16년이 지난 현재, 세번째의 石油危機가 일어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적다. 매년 두자리대의 成長을 달성하는 高度成長과 같은 狀況은 아니지만 日本經濟는 內需를 중심으로한 새로운 成長의 時代를 맞이하고 있다.

1989年度 經濟를 항목별로 보면 消費稅의 영향을

받는 것이 大衆價格商品이므로 個人消費가 新稅의 도입으로 급속히 냉각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

오히려 物品稅의 폐지와 所得稅 減稅의 효과가 耐久消費財의 購入意欲을 높일 것이다.

더우기 실업률이 2.5%로 계속 저수준에 그쳐 雇傭者 所得의 개선이 所得要因으로서 소비를 지탱한다. 1인당 雇傭者 所得의 伸張은 前年度(3.5%)보다 높은 4.3%가 된다.

企業은 業績擴大에 따라 常用雇傭者를 늘리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常用雇傭指數는 '88년 봄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89년은 더욱 常用雇傭者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企業으로서는 이 勞動 コスト의 上昇을 잘 흡수할 수가 있으면 企業業績도 堅조를 유지하고 그것이 또 雇傭者 所得의 증가로 이어지는, 好循環도 기대할 수가 있다.

이 결과 實質個人消費는 前年度의 4.9% 증가와 거의 같은 4.7% 증가를 달성하여 消費 붐은 장기화할 것 같다.

內需의 또 하나의 추진력인 設備投資는 약간 감속될 우려가 있다.

실질로는 前年度 伸張率(16.5%)의 절반인 8.2%의 伸張으로 감속할 것으로 보인다. 前年度의 급속한 投資의 擴大背景에는 恩高, 內需市場의 擴大에 대응하는 企業의 構造調整이 있고 이것이 '89년도에도 같은 추세로 계속될 것이라고는 생각하기가 어렵다. 현재의 期待成長率을 5%로 본다면 年率 20% 增加의 投資가 몇년이고 계속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만약 '89년도에 設備過剩이 표면화하여 實質設備投資의 伸張이 제로가 되면 實質經濟成長率은 2.8%로 급저하 한다. 資本財需給의 完化 등으로 物價는 綜合都売物價가 1.7%에 떨어지지만 經常黒字는 標準모델보다 60億달러 확대된다.

그러나 현실에는 技術革新關聯이나 研究開發關聯의 投資에 대해서는 企業의 의욕은 쇠퇴하지 않고 안정된 Pitch로 계속 증가한다.

實質住宅投資는 '89년도에 전년도비 마이너스가 될 전망이다.

地價上昇에 대응한 節稅目的의 賃貸住宅建設은 피크를 넘어서 주택증가도 기대할 수 없다.

新設着工住宅數는 前年度에 비해 약 10만戶 적은

157만戶에 그친다.

(2) 黒字削減 페이스鈍化

外需는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지속되지만 輸出增加로 外需가 實質經濟成長率을 인하하는 일은 적어진다. 商品, 서비스輸出에 해외로부터의 配当 등 수령분을 더한 實質輸出 등은 前年度比 6.3% 증가한다. 한편 수입의 海外에 대한 旅行代金支払 등을 포함한 輸入 등은 前年度の 18.2% 增加에서 8.1%로 伸張率이 크게 둔화한다. 엔高 일단락에 따른 輸入物価의 하락세가 언제 멈춰지느냐가 최대의 요인이다.

이 결과 '89年度 實質經濟成長率은 4.3%로 前年度の 5.2%보다 낮아지겠지만 景氣自体는 약간 속도를 늦추면서 拡大基調를 유지한다.

金額 베이스로는 貿易黒字가 前年度の 938億달러에서 904億달러로 감소하겠지만 '87년도 실질적인 940億달러로부터의 縮小傾向은 계속 담보상태를 보일 것이다. 對外不均衡 是正의 Pitch가 둔화함으로써 通商摩擦이 재연될 것이 예상되어 한층의 市場開放努力이 해외로부터 촉구될 것이 뻔하다. 消費稅 도입을 포함한 稅制改革으로 물가는 1.5% 消費者物価가 1.2% 올라간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消費稅의 稅額이 政府의 展望대로 적정하게 價格轉嫁될 경우이다. 轉嫁가 잘 되지 않고 消費者 物価의 引上效果가 0.2%에 그치면 個人消費, 設備投資 등에 모두 플러스가 되어 實質經濟成長率은 標準 모델보다 0.3% 높아진다. 거꾸로 편승 가격인상이 잇달아 인상효과가 2.2%가 되면 實質經濟成長率은 4%에 그친다.

勞働需給의 逼迫에서 오는 賃金上昇壓力은 앞으로 우려될 인플레이에 크게 차지하는 포인트이다. 이미 技能勞働者를 중심으로 賃金은 상당히 상승하고 있으며 勞働者의 安定確保를 목적으로 正社員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움직임도 나와 있다. 앞으로 수요가 일단락됐을 때에 過大한 人件費 부담이 일어날 우려를 저버릴 수가 없다. 이 결과 내년도의 도매물가상승률은 2.1%,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9%를 전망한다.

(3) 日本經濟, 6개의「IF」

<시나리오 ①>

● 原油價格의 上昇

1989년 2/4분기부터 原油가격이 標準予測(1배럴=15달러)보다 5달러 높은 20달러가 된다면 經常黒字는 732億달러로 縮小되지만 경기에는 마이너스. 도매물가, 소비자물가의 上昇率은 3%대가 되고, 實質個人消費의 伸張率은 4.6%로 떨어진다. 實質經濟成長率은 4.2%로 0.1포인트 떨어진다.

日本銀行이 金融緩和基調를 유지하는데는 어려워질 것 같다. 인플레이 우려를 일찌감치 억제하기 때문에 예방적인 긴축으로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시나리오 ②>

● 엔時勢의 急上昇

1/4분기 1달러=115엔, 2/4분기 110엔, 3/4분기 105엔, 4/4분기 이후 100엔으로 엔高가 진행되면 實質經濟成長率은 2.9%로 곤두박질친다. 實質輸出의 伸張이 標準 모델(1달러=120엔으로 추이)의 6.3%에서 0.1%가 되어 外需가 대폭적으로 감소한다. 實質民間設備投資도 6.9%로 떨어진다. 한편 輸入이 拡大, 物価는 도매물가가 前年度比 1.6%감소하는 등 안정된다. 이에 따라 個人消費는 전년도비 伸張率이 5.0%로 상승한다. 經常黒字도 標準 모델보다 13億달러 축소된다.

<시나리오 ③>

● 再割引率上昇

2/4분기부터 현행 2.5%인 再割引率이 3%로 0.5% 인상되면 景氣는 약간 감속한다. 영향이 약간 큰 民間設備投資로도 실질의 伸張率은 0.5포인트 저하에 그친다. 實質成長率은 4.2%로, 個人消費의 實質伸長率도 4.6%로 저하된다. 다만 日本이 再割引率을 인상하면 國際金融·資本市場에 대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외환시장이나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고려, 國際協調를 배려한 조치가 될 것이다.

<시나리오 ④>

● 株価의 再暴落

'89년 4/4분기 이후 日經平均株価가 2만엔으로 폭락한다면 實質經濟成長率은 3.9%로 떨어진다. 企業収益도 伸張率은 株価가 폭락하지 않는 경우의 약 절반인 5.0%로 떨어진다. 株価의 폭락은 '87년 가을에 美国을 震源地로 일어났다. 美国에서 인플레이 우려가 고조되면서 長期金利가 상승하여 株式에 모였던 資金이 債券으로 轉換된 것이 큰 계기가 되었다. 재차 日本의 株価가 폭락하는 시나리오는 国

內的 요인만으로는 생각하기 어려우며 역시 國際金融·資本市場의 혼란이 있었을 때 문제가 될 것 같다.

〈시나리오 ⑤〉

●週休 2일의 定着

1월부터 官公庁의 토요일 閉庁에 이어 2월부터 金融機關의 完全週休 2日制가 실현되는데 完全週休 2日制가 定着되면 個人消費를 0.2% 증대시키므로서 實質成長率을 0.1% 올린다. 이미 大企業에서는 完全週休 2日制가 보급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中小企業에 定着시키는 것이 과제이다. 政府는 작년 5월에 결정한 經濟運營 5개년계획에서 연간 총노동 시간을 1,800시간으로 종전보다 300시간 정도 단축하는 목표를 내걸고 休日을 늘리려하고 있다.

〈시나리오 ⑥〉

●높은 賃金 引上

春季定期賃金引上目標를 標準 모델인 5.4% 보다 1포인트 높은 6.4%로 설정하면 個人消費, 設備投資의 伸張率이 약간 높아져 實質成長率도 4.3%가 약간 올라간다. 1人당 雇傭者 所得은 3만 7,000엔 增加한다. 다만 消費者物價의 上昇率이 3.1%로 3%대로 올라가는 외에 도매물가도 2.3%로 올라간다. 消費稅의 賃金引上에 對한 影響에 對해서는 「所得稅 減稅 등에서 이미 커버되었기 때문에 消費稅의 物價引上效果를 계산에 넣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가 않는다」라는 의견이 政府內에 있지만...

다. 歐洲

'89년의 유럽경제는 국가에 따라 약간의 起伏이 있기는 하나 전체로서는 擴大 tempo가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 각국이 모두 작년에 예상을 웃도는 순조로운 成長을 한데 따른 反動이 나오는데다 인플레이의 그림자가 다가서고 있다. 환율시세의 動向도 우려되며 域外貿易의 불균형 擴大는 큰 문제가 될 것 같다.

EC(유럽공동체)의 經濟展望에 의하면 GDP(국내총생산) 베이스의 '89년 實質成長率은 EC 전체가 2.75%로 작년의 3.5%에 비해 成長 tempo가 둔화된다. 英國은 작년의 3.75%에서 '89년은 2.5%로, 西獨은 마찬가지로 3.25%에서 2.5%, 프랑스는 3.0%에서 2.75%, 이탈리아는 4.0%에서 3.25%로 한결같이 '88년을 밀돌 전망이다.

작년까지의 유럽경제는 70년대말 이래의 왕성함을 보였는데, 이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은 英國, 이탈리아, 스페인이며 이에 西獨, 프랑스가 가세했다. 그런데 최근들어 好調였던 국가의 경기가 과열기미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英國으로 '88년 4/4분기는 인플레이율이 6.25%까지 上昇했다. 政府는 엄격한 금융긴축 조치를 취했다. '89년 전반에도 물가상승이 계속될 전망이다기 때문에 긴축정책이 더욱 계속될 것이 확실하며 內需가 주춤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탈리아도 5% 가까운 인플레이가 더욱 가속하는 것을 경계하여 긴축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최근 수년간 보인 高成長이 약간 떨어질 것이다.

西獨의 消費稅 인상도 유럽경제에 큰 영향을 줄 것 같다. 增稅로 個人消費가 후퇴할 우려가 큰데다 企業收益의 압박으로 投資가 주춤할 가능성이 있는 등 西獨景氣는 둔화될 展望이다. 다만 輸出은 계속 好調로 추이할 것으로 보여져 유럽내의 對外不均衡은 擴大될 것 같다.

다만 전체적으로 주춤하기는 하겠으나 유럽경제가 계속 성장할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프랑스 등은 상승 무드를 타는 것이 늦었긴 하나 '89년도 거의 작년수준의 완만한 성장을 유지할 전망이다. 로칼 프랑스 內閣은 대폭적인 所得減稅를 실시하고 物價安定과 프랑화 안정을 重點으로 삼은 정책운영을 계속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EC의 市場統合은 이제 3년후로 다가왔다. '89년은 유럽의 산업계, 금융계에서 기업합병이 주변국을 포함하여 되풀이 되어 유럽은 활력이 넘친 해가 될 것이다. 반면 금년에도 높은 失業率, 一部國家의 財政赤字 등 문제가 남을 것이 틀림없다.

라. 아시아

아시아 經濟는 輸出이 견인차 역할이 되어 '88년은 순조로이 성장했다. 그러나 '89년은 對美摩擦에 따른 通貨切上 압력이 높아지는 외에 불력 經濟化의 움직임, 中國의 經濟調整의 여파 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NICS를 중심으로한 인력 부족, 이에 관련된 코스트 경쟁력의 低下가 우려되어 큰 전환점에 놓일 것 같다.

각국의 '89년 實質經濟成長率(국내총생산 베이스)

아시아 各国의 經濟成長率(%)

	87年	88年	89年
韓 国	11.1	11.5	8.5
台 灣	12.4	7.06	7.0
홍 콩	13.6	6.0	2~5
싱 가 폴	8.8	10.0	7.0
말레이시아	5.2	7.4	6.5
태 국	7.1	10.5	7.5~8.0
필 리 핀	5.1	6.5	-
인도네시아	3.6	4.0	-

註: 國內總生産(GDP)의 實質伸張率. '88, '89年은 予測, '87年은 實績 予測은 公的展望 등을 바탕으로 作成

예측을 보면 한결같이 前年을 밑도는 신장으로 설정하고 있다. '86년부터 '88년까지 3년 연속 두자리대 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보이는 한국은 8.5%를 예측하고 대만은 전년을 약간 밑도는 7%를 예상하고 있다.

한국, 대만은 미국으로부터 通貨의 가일층 切上을 촉구받고 있으며 對美貿易의 不均衡 시정이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최대과제로 되어 있다. 對美貿易 黒字 160億달러('87년)인 대만은 대만달러(元)의 절상과 市場分散策으로 對美輸出額(元표시)은 '88년 1~11월에 전년동기비 11% 감소했으며 반대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68%나 급증했다. 동기간의 신장률은 1.1%(전년동기비는 13.2%)에 그쳐 NICS의 우등생앞에 가로 놓인 벽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국도 미국 및 EC와의 貿易摩擦에 대응하여 特定地域으로의 輸出依存度 삭감을 촉구받고 있는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中國의 經濟情勢에 얽힌 영향도 보아 넘길 수가 없다. 中國은 인플레이 제의 일환으로서 輸出抑制, 輸入制限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특히 홍콩이 영향을 받을 것 같다. 美國의 NICS에 대한 特惠關稅(GSP) 폐지와 더불어 각국이 대일수출에 힘쓸 움직임을 앞으로 더욱 강해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인력부족, 賃金引上率의 上昇과 같은 문제도 작년에 두자리대의 임금인상률을 보인 韓國과 홍콩을 대표로 더욱 확대될 것 같으며 이에 따라 아세안 각국에 대한 투자가 한층 활발해질 전망이다. 市場分散, 産業構造改革의 파도속에서 NICS의 成長鈍化,

아세안 제국의 비교적 높은 성장이라는 圖式이 한층 뚜렷해질 것 같다.

다. 蘇聯·東歐圈 國家

'89년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改革)가 經濟面에서, 진가를 묻는 해가 될 것이다. 國際政治舞台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반면 國內의 經濟상태에 두드러진 개선은 나타나지 않고 생활수준의 향상을 요구하는 국민의 불만도 한층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소련으로서 最大의 과제는 消費財, 生活必需物資의 공급부족을 해소시키는 것이다. '89년의 계획은 消費財 生産의 伸張을 生産財 生産의 伸張率의 2.3 배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食糧 생산의 5% 이상이 불량품이라는 非効率的인 현상을 어느 정도까지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 目標達成의 열쇠를 쥐게 된다.

작년 10월의 最高會議에서 처음으로 밝힌 財政赤字問題도 현안이다.

한편 東歐圈 國家에서 개혁의 최선두를 달리는 헝가리는 1인당의 殘高가 東歐圈 國家中에서 최고에 달한 對外債務가 經濟운영에 있어서 부담이 될 것 같다. 유고의 민족투쟁이나 폴란드의 「連帶」問題는 經濟事情을 한층 악화시키지나 않나 우려된다.

經濟再建을 서두르는 소련·東歐圈 國家는 서방측 先進國과의 交流擴大에 한층 큰 기대를 할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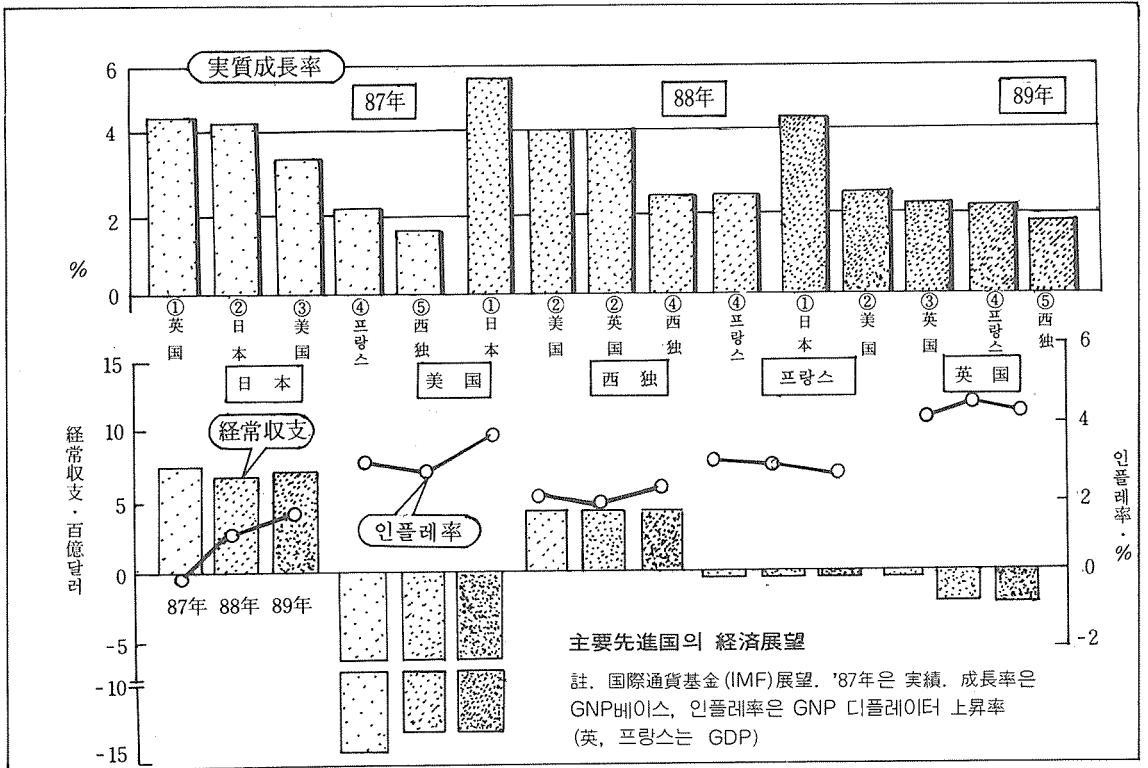
소련이 投資環境에 對한 西方側 企業의 높은 불만을 받아들여 1월중에 실시하는 合作企業法 개정은 西方側과의 협력에 거는 소련의 열의를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東歐圈 國家로서는 EC와의 關係緊密化가 經濟再建의 중요한 기둥의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88년의 東西貿易은 3년만에 확대로 바뀌고 더우기 '89년은 '79년 이래 10년만에 4%대의 伸張率을 보일 전망이다.

바. 中 東

금년 1月 石油輸出國機構(OPEC)는 새로운 生産協定을 訂立했다. 금후 가맹각국이 生産協定을 준수할 지의 여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라크가 2년 4개월만에 生産協定에 복귀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협정성립 직전인 작년 가을에 原油 價格이 폭락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新協定이 준수되지 않는다면 겨우 회복한 OPEC의 결과는 일시적인 것으로 끝나버리며 또한 새로운 生産協定을 준수해도 OPEC이 목표로 하는 1 배럴=18弗까지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는 가능성은 희박해질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역으로 協定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유가폭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란, 이라크의 戰後復興을 목표로 한 활동도 금년의 中東經濟 情勢의 초점이다.

작년 8월에 휴전을 실현한 兩國은 거액의 對外債務을 안고 있는 이라크와 채무가 거의 없는 이란이라는 대조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부흥의 財源이 原油輸出뿐이라는 점은 공통되고 있다.

兩國이 어떤 부흥계획과 그에 필요한 原油生産計劃을 세워 실행에 옮기느냐에 따라 금년의 原油價格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兩國은 선진공업국에게 경제·기술협력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전에 경제적 자립을 도모했던 입장 때문에 외국으로부터의 차관을 금지해

왔던 이란도 이와 같은 방향을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므로 실제의 부흥협력계획이 어떤 조건을 표방할 지가 주목된다.

사. 通 貨

'89년의 金融市場은 부시 新政權의 「信任」을 묻는 2년이 된다. 市場의 최대 관심사인 美國財政赤字 삭감을 둘러싸고 백악관과 의회의 대립이 장기화되어 구제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달러 불안이 일거에 높아질 것이다. 국내에 각각 다른 사정을 안고 있는 先進 7개국(G7)도 國內政策을 우선시키는 나머지 通貨安定이라는 國際協調體制에 금이 갈 가능성도 부정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은 움직임을 市場이 어디까지 끈질기게 지켜 볼 것인지. 先進各國은 經濟·金融政策에서 어려운 정책수행이 요구된다.

大統領選挙 캠페인 중 일관해서 增稅를 부정해온 부시 政權은 과연 신뢰할 수 있는 財政赤字 削減策을 내놓을 수 있을까. 市場의 불안을 뒷받침하기도 하듯이 부시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일거에 달러 하락이 이뤄졌다.

議會指導者를 중심으로 增稅를 요구하는 소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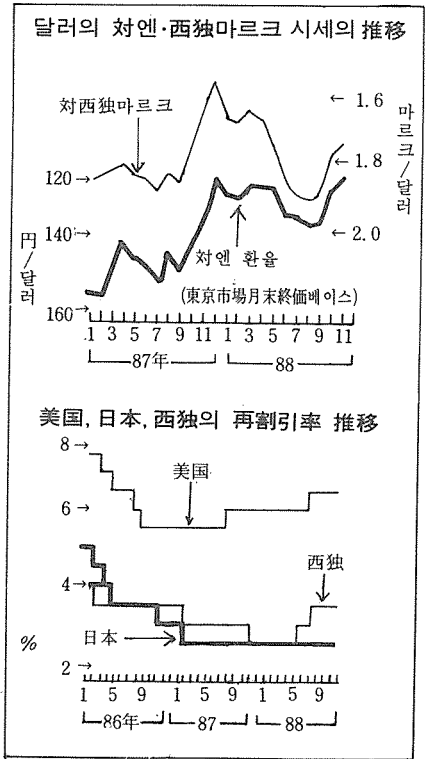
높아지고 있으나 부시 대통령으로는 쉽사리 增稅를 할 수가 없다. 增稅를 하면 공적위반이라는 낙인이 찍힌다. 더우기 国内에 끈질긴 인플레이 압력을 가속시켜 金利上昇→景氣後退라는 최악의 사태를 초래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부시대통령이 제창하고 있는 歲出의 유연한 동결에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市場의 信任을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方案을 수립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市場의 장래를 좌우하는 또하나의 요인은 인플레이의 동향이다. 美国企業은 「풀 操業」에 가까운 상태에 있으며 「完全雇傭」에 따른 賃金上昇壓力도 物価에 서서히 效力을 발생시킬 것이다. 美聯邦準備理事會(FRB)는 금년 중반까지는 타이트한 金融調節을 계속하겠지만 再割引率의 引上에는 慎重하지 않을 수 없다. 個人, 企業 모두 史上最高 수준의 債務을 안고 金利上昇에는 대단히 취약한 체질이 되고 있다. 信用不安, 景氣後退를 초래하는 사태는 꼭 피해야 되겠다.

美国經濟는 금년 하반기부터 鈍化 조짐이 나타나 이에 따라 金利가 하락할 여지도 생길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그러나 經營赤字의 대부분을 외국으로부터의 資金으로 충당하고 있는 이상 FRB도 안이하게 金融政策을 늦출 수는 없다. 부시 政權에 대한 불신과 더불어 外国投資家의 달러 資金離脫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87년 10월의 株價暴落이래 달러에 대한 資金의 흐름은 민간주도에서 協調介入이라는 官主導로 바뀌었다. 민간의 달러에 대한 불신감은 아직도 바뀌지 않고 있다.

美国이 취할 수 있는 政策의 폭이 제한되어 있는 가운데 先進各國間에서 여하히 협조체제를 계속해 나갈 것인가가 문제이다. 「協調介入만으로 외환시장을 安定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멜포드 財務次, 官補)고 하는 만큼 달러 하락 基調下에서 각국이 한결같이 内需主導의 政策을 취할 것이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英国이 수차에 걸쳐 金融緊縮으로 금년에는 경기둔화가 예상된다. 인플레이 억제를 최우선시키는 西獨은 内需喚起로 오히려 輸出主導의 政策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EC 域内の 貿易不均衡이 확대하여 域内通貨間의 환율 변동으로 EMS(유럽통화제도)를 재조정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 있다.

미국과 일본도 政權交替, 內閣改造로 國內의 체제를 공고히 하는 것을 優先시킬 가능성이 있다.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인플레이 압력에 대해서도 각국 중앙은행이 金利引上 경쟁에 빠지지 않는다는 보장은 아무데도 없다.

도대체 G7 각국간의 협조체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부시 政權 發足前後에 G7이 개최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 회담에서 각국간의 균열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인지. 市場은 이와 같은 움직임에 민감하게 느끼자마자 온갖 수단으로 협조체제를 공격해 올 것이다.

아. 通商

「美歐摩擦」 「農業貿易」 그리고 「日本の 介入」. 이 세가지가 '89년의 國際通商摩擦을 검색하는 중요한 Keyword가 될 것이 틀림없다.

'88년말 캐나다의 몬트리올에서 열린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우르과이라운드(多者間 貿易交渉)의 中間修正閣僚會議은 농업문제로 인한 미국과 歐洲와의 대립이 원인으로 事實上 결렬됐다. '89년은

새해초부터 새로 미국과 歐洲와의 전면대결이 시작된다. 어느 쪽의 편을 들 것인지 日本의 입장은 대단히 미묘하다.

불씨는 農業貿易의 自由化 問題이다. 「農産物 輸出에 國家의 補助金을 주는 歐洲의 政策은 단연코 허용할 수는 없다」고 레이건 美 前大統領이 규탄하자 EC는 加盟 12개국에 한당어리가 되어 「미국의 변명은 현실적이지 아니다」라고 되받았다. 兩陣營은 모두 양보할 기미를 추호도 보이지 않는다. 美國의 부시 新政權도 歐洲에 대해서는 그럴 수 없이 엄격하다. 過剩生産이 원인으로 農産物의 國際市況이 혼미를 거듭하면 할수록 美國의 對歐洲 자세는 신랄해진다. 으름장을 놓는 交渉家로 알려진 야이터 USTR(美通商代表部) 前 대표를 新農務長官으로 자리를 옮기도록 한 것도 부시 新大統領의 歐洲에 대한 엄격한 의사표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美國은 2,000년까지 農業補助金의 全廢를 요구하고 있으나 EC는 이에 응할 생각이 없다.

電機, 自動車 등 이른바 工業製品에 있어서는 아시아 NICS에 의해 國際市場을 지배당하여 農業輸出國으로서의 색깔을 한층 짙게 하고 있는 美·歐 陣

營, 이들로서는 農業貿易은 死活이 걸린 문제인 것이다.

美歐摩擦의 배경에 있는 地域貿易主義의 대두도 보아 넘길 수가 없다. 美國은 캐나다와의 사이에 關稅·非關稅 장벽을 10년간으로 철폐한다는 「美加自由貿易協定」을 체결하여 '89년 1월 1일에 발효했다. EC는 '92년까지 加盟 12개국의 시장을 통합한다. 이 두가지 거대한 經濟 불력이 부딪치려 하고 있다. 農業貿易摩擦을 불씨로 2개 經濟圈의 經濟霸權 쟁탈전은 한층 격화할 것이 자명하다.

GATT 體制가 흔들릴지도 모를 이 經濟의 불력化 속에서 日本은 어떠한 선택을 하면 좋을까. 歐美로부터의 農産物 輸入을 急擴大하지 않으면 안될 흐름이다. 특히 쌀의 門戶 開放은 '89년에 最重要 課題가 될 것이다. 그것 뿐만 아니다. 美歐 兩陣營에 대한 産業直接投資의 가일층 가속이 요구될 것이다. 美歐가 모두 경쟁력이 있는 日本企業의 投資를 유치하여 産業基盤을 強化, 이를 무기로 싸우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美歐의 對日攻勢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서 日本으로서의 어려운 해가 될 것은 틀림이 없다.

공장안에 에너지 절약 전담반을 두자.